

■ 서평 ■

박 단 편, 『현대 서양사회와 이주민: 갈등과
통합 사이에서』 (한성대학교 출판부, 2009)
- 부각되고 있는 “언저리 테마”-

오 영 인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국제 이주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의 한 보고에 따르면, 현재 출생지를 떠나 살고 있는 인구는 약 1억9천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약 3%이다. 이는 곧 세계 인구 35명 중 1명이 이주하여 살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지구화의 진전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¹⁾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외국인 입국자 수는 이미 500만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 그 수도 매년 평균 4.4%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다. 그 중 결혼을 통한 외국인 이주자가 12만 명을 넘어 전체 외국인 입국자 중 14%를 차지하고 있다.²⁾ 이제 ‘백의민족’이니 ‘한민족 한핏줄’이니 하는 식의 표현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게 되었다. 그보다 이주민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들을 또 다른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소위 말하는 ‘다문화’ 개념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주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현상이다. 그러나 근대 민족국가(nation-state)가 상정한 역사주의적 사고하에서 인간의 이동성에 대한 인식은 지극히 이중적이었다.³⁾ 인간의 이동성은 대체로 불안정적이

1) 더 자세한 내용은 국제 이주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홈페이지 참조. <http://www.iom.or.kr>

2) 한국 내 외국인 체류 현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홈페이지 참조. <http://www.immigration.go.kr/HP/IMM/index.do>

3) 이때 이동성은 단순한 움직임 혹은 운동을 뜻하는 무브먼트(movement)와는 다른 개념이다. 다시 말해, 움직인다는 것 자체 혹은 운동이라는 것 자체에 어떤 의미가 부여될 때 비로소 이동성(mobility)이 나타난다.

며 예측 불가능한 그래서 위험한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주도적이었다면 순례자들의 경우에서 드러나듯이 인간의 이동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또한 공존하였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나 인식은 이동성이 갖는 이데올로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이동성의 이데올로기가 실제 움직임을 생산하는데 어떻게 작용하였으며 어떤 의미를 부여하였는가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드러났던 것이다. 그런데 지리적 경계를 넘나들며 이동하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언어, 이론, 그리고 매체 또한 이주하는 인간과 더불어 영토를 넘나들며 다양한 문화 경험을 확산해왔다. 이제 이주 문제는 노동력의 이동과 정착이라는 단순한 논의에서 벗어나 이주자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일상적 문화소통을 통해 영토적 경계를 넘는 다문화주의에 관한 다각도의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세계화 현상과 더불어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주나 이민문제에서 다문화주의는 이제 당연한 사회적 화두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 이민문제와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그보다 이주에 관한 논의는 법적, 제도적 혹은 경제적 차원의 논의에만 머물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이주자를 권력과 경계의 틀 안에서 하나의 부속물로 혹은 통합이나 배제의 대상으로만 간주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주민들은 정착사회(host society)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위협하는 위험하고 불순한 인자로만 취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이주민들과 정착민들 사이의 정치·경제적 갈등양상에만 집중했던 이주민에 대한 관심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들의 진정한 사회통합 문제는 인문학자들에게도 이제 더 이상 ‘언저리 테마’일 순 없기 때문이다.

2009년 한성대 이민인종연구소가 추축이 되어 발간한 『현대 서양사회와 이주민: 갈등과 통합 사이에서』는 한국보다 먼저 이주민 문제를 경험하고 고민해 온 서구의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검토한 인문학적 시도다. 모두 제3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의 1부에서는 이민의 나라로 잘 알려진 미국과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의 이민역사에 대한 전반적 소개와 이민역사에 대한 연구동향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부에서는 정착사회에서 이주민과 정착민들 사이의 사회·문화적 갈등양상을 각 나라별 특수한 상황 속에서 논의하고 있다. 각기 다른 역사적 배경 속에서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에서 이슬람 문화권 이주민들이 경험한 사회적,

문화적 충돌, 예컨대 히잡 착용 등과 같은 구체적 갈등양상을 소개하고 있다. 3부는 영미지역의 경험을 넘어 호주나 네덜란드 등 각 나라들의 현재 이주민 정책들과 그 경향들을 살펴봄으로써 이미 불거져 나온 이주민 문제를 어떻게 껴안을 것인지 혹은 무엇을 배제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3부는 앞으로의 방향까지 조심스레 가늠해보는 장(場)으로 할애되고 있다.

이 책은 편자가 밝히듯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기획된 글들이라기보다는 이주문제에 대한 공통의 관심으로 여러 명의 연구자들이 다양한 학술지에 쓴 글들을 모은 논문 모음집 형식이다.(p.4)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이주문제에 관련한 용어들이 합의되지 못한 채 쓰이는 경우가 드러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아쉬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자들이 정착사회에 적응·통합되는 과정에서 쓰이는 용어들 예컨대 프랑스 이민정책인 “공화국 통합모델”이라는 이민자 통합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동화(assimilation), 편입(insertion), 그리고 통합(integration) 등의 용어를 간략하게 개념 정의한 부분이나,(pp.372-378), 너무도 당연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 ‘다문화주의’ 담론을 호주라는 특수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논의한 부분은(pp.503-506) 이 책이 갖는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편자가 주장하듯 “이 책의 최대 장점”은 3부 “통합모델을 찾아서”이다 (p.5). 2001년 미국의 911 테러사건과 2005년 프랑스 이민자 소요사태, 그리고 같은 해 영국의 런던 테러사건 등으로 인해 기존의 이민 혹은 이민 정책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해보고자 하는 각 나라의 노력 또한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방법상의 차이는 있으나 각기 다른 다양한 차이 속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구의 이민 정책이 보여주는 공통되는 하나의 경향은 통합의 모습이다. 그것은 이주민을 자기 주체성을 갖는 진정한 또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긍정적 통합일 수도, 아니면 “역사적 과정이나 권력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문화의 공존만을 주장”하며 “실제적인 불평등은 숨긴 채 형식적인 평등”만을(p.506) 드러내는 분리주의(seperate-but-equal)적 통합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어느 쪽의 통합이든 근대 민족국가가 상정한 영토성(territoriality), 자기 정체성(identity), 단일성(homogeneity) 등의 개념을 버리고 넘어서지 못하는 한 다문화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고, 따라서 본래의 “사고를 버리고 다시 새로이 태어나……

모두 용광로에서 용해되고 다시 주조”되길 바라는 일종의 “크레베코르적
신화는……계속 재생될 것”이라는 점이다.(pp.131, 164-165)

우리가 역사 연구를 통해 장미빛 미래를 기획할 순 없어도 경험을 통해 과거의 오류를 점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이 책은 그 의도에 충실한 텍스트이다. 오랜 기간 이주민 문제를 경험한 다양한 서구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경계해야 할 것은 서양 지식의 단순한 수입에 따른 다국적 역사 경험의 조합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한다는 점이다.

e-mail:yioh7@hotmail.com